

금빛 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다시 만나는 새벽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디오 코리아 설교 13회

13. 거듭남과 새 언약의 계명

2010년 7월 10일(안식일 아침)

[겔36:26,27]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序; 지난 시간에 거듭나는 것이 어떤 것이며 거듭나는 길이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세히 들으셨으면 거듭남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을 생명을 받아 새로 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곧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그 생각이 영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주장하는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거듭나는 것은 곧 새 영으로 받고 새 마음을 받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에스겔서의 이 말씀은 구약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거듭남에 대하여 가장 분명하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1. 새 마음과 새 영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신 곧 성령으로 거듭난 때입니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둔다는 말씀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됩니다. 율례라는 말은 호크인데 규정된 법규를 뜻하는 말이고 규례는 미스파트인데 많은 경우 심판으로 번역되었으며 또 공의라고도 번역되었습니다. 이 말도 법규를 뜻하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법규와 규정을 지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되었는지 시험해보라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거듭난 표는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롬8:5,6에 그렇게 기록되었지요. 영에 있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한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육신에 있는 자였기 때문에 육의 생각을 했으나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이 되었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의식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그런 경지에 이르지 않으면 그런 의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총각에게는 남편의 의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것처럼 처녀에게는 아내의 의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비록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내가 되어 각각 남편과 아내의 의식이 생겼을지라도 아기를 낳지 않았으면

부모의 의식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일상생활에서도 이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거듭난 의식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그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육의 생각 외에는 차원이 다른 의식이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나면 거듭난 의식이 생깁니다. 거듭났다고 하면서 거듭난 의식이 생기지 않았으면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호랑이 가죽을 쓴 당나귀> 거듭난 것 같아 보일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인격 도야를 통하여 겉보기에 마치 거듭난 사람처럼 아주 고상한 도덕적 인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난 사람의 의식이 됩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났기 때문입니다.

2. 새 언약과 거듭남

거듭난 의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가 그의 정신이 되어 그 원칙에 일치되는 의식이 생기고 그 의식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새 언약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렘31:31~33]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32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33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은 새 언약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그들 속에 있고, 그들 마음에 기록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에스겔서의 말씀과 같은 뜻이지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그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에 있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의 사고방식이 모두 하나님의 법대로 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이렇게 된 것을 영에 있는 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의 조문을 보고 그 조문을 실천하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이 곧 하나님의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록한 율법 조문을 보고 그것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율법 조문에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준 율법은 꽤나 세밀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만들었습니다. 구약성경에 기록된, 더 좁게 말하면 모세 오경에 기록된 조문으로 명확하게 잘 모르겠는 것을 설명한 것들을 모은 것이 탈무드입니다. 그 중에도 미쉬나라는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생활 수칙 행동 수칙을 아주 세밀하게 지시한 조문으로 구성된 부분입니다. 미쉬나라는 말이 조문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들은 오경이나 미쉬나에 기록된 문자에 그들의 생활이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자유가 없었습니다. 기록된 것을 보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문에 매여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문에 있다고 말합니다. 의문이라는 말은 요즘 잘 사용하지 않는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의문은 의전이라고 할 때 쓰는 의(儀)자와 글 문(文)자입니다. 법칙을 적은 글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지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일입니다. <음식 트레이 이야기> 트레이를 방에 가지고 가는 사람은 한 번에 100원씩 벌금을 물린다. 이렇게 벌칙을 발표하자, 트레이를 방에 가지고 가지 않는 사람은 규칙에 매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규칙이 있거나 없거나 트레이를 방에 가지고 가지 않는 사람은 규칙에 매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식에 식당 트레이를 방으로 가지고 가려는 의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트레이를 식당 밖으로 가져갈 때 벌금을 한다는 규정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법규가 있으나 없으나 트레이를 식당 밖으로 가져가지 않기 때문이지요. 트레이를 식당 밖으로 가져가면 벌금을 한다는 규정 때문에 트레이를 가져가지 않는 사람은 조문에 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조문이 있든지 없든지 트레이를 식당 밖으로 가져갈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그 조문에 대하여서는 조문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서도 그렇습니다. 법조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문이 없으면 그것을 하고 싶은데 그 조문 때문에 못하는 사람은 의문에 속한 사람이고 그런 법조문이 있으나 없으나 그 법에 나타난 내용을 생활 속에 실천되고 있는 사람은 그 조문에 자유한 사람이며 이렇게 사는 사람을 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롬7:6] 이제는 우리가 얽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런 사람이 어떤 경우에 무심코 법조문에 규정된 것을 어기면, 이때까지 그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던 그 규정이 갑자기 살아나며 그는 정죄되는 것이지요. 시행되고 있는 법률은 바로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식이 그의 정신이 준법정신이 되어 있는 사람은 법률이 어떻든지 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의 정신이 바로 법의 정신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후 50일째 되던 날에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관계에 들어갑니다.

3. 자율신경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사람의 의식으로 조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장을 사람이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뛰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능할까요? 심장처럼 인간의 의식과 상관없이 제 일을 자동으로 하는 신경을 자율신경이라고 합니다. 이 자율신경이 고장 나면 병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곧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여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하고 마귀의 생각과 같도록 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에게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율이라고 해서 로봇처럼 만들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결정을 사람이 할 수 있게 했지만 그의 의식이 하나님과 일치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데, 그것이 그들의 즐거움과 행복이었기 때문에 거의 자율적으로 되는 것과 같은 수준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 된 그의 모든 후손들은 육체의 생각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영의 사상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도 없다고 했습니다.

[롬8:7,8]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지만 이제는 따르고자 해도 따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사상이 항상 악하기 때문입니다.

[창6:5]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상태이지만 범죄한 후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하다고 하면 곧 도덕적으로 고약하고 괴팍하고 인정사정없는 사람을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악하다고 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 있다는 사상으로 사는 것을 악하다고 합니다.

[렘2:19]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도덕적으로 아무리 선하고 성질이 너그럽고 인후하고 인정스러워도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면 악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담 안에서 죽은 상태로 있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요.

[출5:2]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관대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애굽 왕 바로는 여호와를 모른다고 호언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을 듣고 순종할 리가 없지요.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성질이 아니고 사상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자율이 되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듭나면 새 언약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거듭난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상이 되고 그들의 생애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법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8:10]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히10:16,17] 주께서 가라사대 그 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17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들은 새 언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고 생각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불법을 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성질이 되고 생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거듭난 사람들의 자율적인 삶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의 글자들을 보지 않아도 그 마음과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정신으로 충만한 상태로 살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그들의 삶의 자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면 이렇게 생각이 바뀝니다. 더 이상 육체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 된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을 것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표상에서 이것을 가르쳐주셨습니다.

4. 두 번 써주신 십계명

하나님께서 옛 이스라엘과 처음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돌비에 하나님을 친히 쓰신 언약의 돌비를 주셨습니다. 곧 십계명을 기록한 돌비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체결한 언약서의 내용입니다.

[신4:13]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우리는 십계명이 언약서라는 것을 잘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언약서입니다. 언약은 체결한 두 편 중에 어느 편이라도 어기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는 배상을 해야 합니다. 십계명은 그런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의 당사자로서 당연히 준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 가 있는 동안 벌써 언약을 어겨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경배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반포하셨고, 24장에서 짐승을 잡아 피를 뿌려 조인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이 반포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돌비에 써서 주시는 것을 받으러 간 동안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급히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했고 모세는 백성들이 보는데서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여 준 언약의 돌비를 던져 깨뜨렸습니다. 언약이 깨어진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신 후에 모세에게 깨뜨린 것과 같은 돌비를 모세가 만들어서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친히 돌비를 만드셨지만 두 번째는 모세에게 만들어 오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다시 산에 40일을 있었는데,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온 돌비에 처음 것과 같은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친히 쓰셨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러나 모세 자신은 잘 몰랐습니다. 백성들이 그 얼굴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광채가 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돌비는 깨뜨렸는데 둘째 돌비를 가지고 올 때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것은 둘째 돌비는 언약을 이루게 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언약에 대한 표상입니다.

[고후3:18]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씀은 거듭남으로 새 언약에 있는 사람들이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거듭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뀐 것을 보아서 확인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으니 생활이 바뀌게 되지요.

[잠23:7]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마음의 생각대로 그 사람이 그런 인격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생각이 영의 생각이 되었으니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된 것이고 그런 사람은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에 있는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않고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 편에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즉 전적으로 성령이 주관하는 생활을 한다는 말입니다.

십계명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애청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1~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를 가르치고, 5~10계명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도를 가르칩니다. 그것을 종합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그 성질이 사랑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두 계명에 대하여 묻는 사람에게 그렇게 대답하셨지요. 그것은 십계명의 두 부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부분은 세상에서도 도덕과 윤리로 가르치는 것이지요. 그러나 첫 부분은 완전히 종교와 신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아도 세상의 법이 아무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법도 간섭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범한다고 체벌을 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구금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영원한 심판에서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전8:11]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는 풍조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7:21~23]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불법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십계명 전체가 하나님의 법이요 사랑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후반부는 사랑을 사랑하는 최소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소한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십계명의 내용을 행하는 것은 최소한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더 큰 사랑을 하라고 계명을 주십니다.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것은 바른 대답이 아닙니다.

[요13: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요15:12]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고 확인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어떻습니까?

[요15:13,14]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지 못해도 최소한 십계명의 내용은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최소한의 생활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생각에 그것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부분 모두 그의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인격이 되고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된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새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사람들이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애청자 여러분은 진정으로 거듭난 경험으로 새 언약 안에 있는 것 같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지금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인격이 되도록 간구하시면 예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가감하지 마시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십시오. 그날 우리가 착하고 신실한 종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노라는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넘치는 은총이 생활의 전체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참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었는지 스스로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 재림하실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두려운 음성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 착하고 신실한 종이 잘 하였다는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사람답게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해주시고 범사에 주님의 이름으로 행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사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010. 5. 28(금) 2:32pm.

이 방송을 듣고 설교 CD를 원하시는 분은 626-374-9480으로 연락하시고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설교자는 760-329-3846이나, 626-590-51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4. 창조와 하나님의 계명